

배용준 팬 커뮤니티의 가족 담론과 아시아 정체성

(충남대학교 언론정보학과 양은경)

1. 문제제기

최근 들어 한국 대중문화가 보여준 국제적 성공의 한복판에는 스타가 자리하고 있다. 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는 지난 몇 년 동안 가장 주목받는 아시아의 스타로 부상한 <겨울연가>의 배용준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스타는 팬이라는 집단을 기반으로만 들어지는 것이다. 스타와 팬은 산업사회의 대중문화에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존재들이다. 배용준이라는 스타 탄생 역시 아시아 전역에서 광범위하게 형성된 팬 집단들에 의해 가능하였다. 특히 일본에서의 <겨울연가>와 배용준 팬덤은 이례적으로 강력하여 한일 양국 모두에서 큰 관심을 불러 모았다.

일반적으로 팬덤은 문화산업적인 측면에서 경제적 이익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팬들의 욕구와 문화적 취향에 대한 산업론적 관심은 클 수밖에 없다. 배용준의 경우도 팬들이 <겨울연가>를 비롯해서 그가 출연한 드라마 텍스트를 시청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드라마 DVD와 OST 음반, 책, 드라마 소품들을 적극적으로 구매할 뿐만 아니라, 한국 관광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파생소비를 보여주었다. 이 때문에 한국과 일본의 문화산업 모두가 배용준 팬덤에 큰 관심을 보였다.

팬덤 연구의 문화산업적 관심과 대별되는 또 하나의 관심은 문화론적 연구들에서 찾을 수 있다. 프랑크푸르트학파의 전통에서 그 맥을 찾을 수 있는 문화론적 인식 중의 하나는 팬이 대부분 어리석고 무력하며 맹목적인 사람들로서, 이들은 보다 진지한 문화예술이나 사회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단지 스타에게 맹목적으로 매달리는 존재, 그렇게 함으로써 문화산업의 이윤창출을 위해 조작되고 동원되는 존재라는 것이다. 다른 하나의 전통은 능동적 의미실천의 주체로서 팬들에 대한 관심이라 하겠다. 한 사회의 공식문화로부터 배제된 사람들에게 대중문화는 사회적 정체성과 사회적 체험들을 의미화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팬덤은 한편으로는 비판론자들의 지적처럼 사회적 행동을 저해하는 보상적인 환상의 수준에 머물기도 하지만, 때로는 더 힘있는 사회적 행위로 전환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오늘날 문화적 세계화의 맥락 속에서 새로운 형태의 다양한 국제적 팬덤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 특징으로는 첫째, 기존의 일국적 차원에서의 팬덤이나 미국을 위시한 서구선진국 문화물의 전지구적 소비를 통해 나타나는 팬덤과 구별되는 새로운 유형의 팬덤들이 지리문화적이거나 지리 언어적인 권력들 내부의 활발한 문화흐름들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한류는 아시아 대중들 속에서 강력한 팬층을 형성하고 있다. 특히 일본에서 나타난 배용준 팬덤은 역사적으로 한국의 식민 모국이었으며,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인 일본의 대중들이 한국 대중스타에 열광하는 현상이라는 점에서, 기존의 국제적 팬덤에 내재된 서구 선진국과 제 3세계의 힘의 불균등 관계가 역전된 현상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겠다.

둘째, 국제적 팬덤에서 인터넷을 비롯한 다양한 뉴미디어 기술의 발전이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인터넷 VOD 서비스, VCD, DVD 기술의 발달은 외국 프로그램에 대한 수용자들의 접근성과 선택의 폭을 한층 높였다. 수용자들이 자국 정부나 문화산업에 의존하지 않고도 자신들의 문화적 취향에 맞는 다양한 대중문화를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소비하는 환경이 되었다(cf. Hu, 2004). 아울러 인터넷의 발달과 확산은 대중문화의 수용의 경험을 국가간 경계를 넘어서서 공유하는 국제적 팬 커뮤니티의 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셋째, 팬덤의 주도층과 관련하여 기존의 팬덤이 주로 젊은 여성층이나 남성들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반면, 세대와 성별 구성에서 새로운 팬 집단들이 부상하고 있다. 일본에서의 배용준 팬덤의 주축은 이를 전한 4,50대의 중년 여성들이었다는 것은 전통적인 팬덤 문화

이와 같이 문화적 세계화의 맥락 속에서 부상하고 있는 새로운 형태의 팬덤을 둘러싼 문화산업론적인 연구들 뿐 만 아니라 문화정치적 함의에 대한 해석들도 시도되어왔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들은 다분히 거시적이고 추상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져 온 감이 없지 않다. 국적 미디어 소비를 둘러싸고 이것이 상이한 국가들이나 문화들 간의 이해와 소통의 계기 낳을 것인가, 새로운 집단적 소속감과 정서의 공유를 통해서 새로운 문화 정체성 형성을 능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들이 제기되었지만, 여전히 구체적인 맥락 속에서의 미디어 소비를 둘러싼 의미실천의 양상들에 대한 연구 성과는 풍부하지 않다. 더구나 기존의 상수 논의들이 여전히 국가 대 국가의 관계 구도 속에서 새로운 문화 공동체의 가능성을 논하는데 머무르면서, 최근 초국적 문화 소비의 중심 주체로 부상하고 있는 여성에 대한 관이나 중산층 계급 문화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빈약하다고 생각된다.

배용준 팬덤의 경우를 보더라도 초국적 대중문화의 흐름 속에서 여성들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소비주체로서 부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의 문화적 실천은, 그들 스스로 편 명시적인 정치성을 표명하지 않는다 해도, 이미 다양한 사회적 실천들과 결합되어 정적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다. 초국적 문화 흐름의 문화정치적 함의를 읽어내기 위해서는 성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다양한 팬 문화의 젠더적 성격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초국적 문화 흐름의 계급적 성격에 대한 논의도 중요하다. 문화적 세계화는 모 계층을 가로질러 동질적으로 경험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흐름에 존재하는 경제적 격차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된다(cf. Bauman, 1998). 1990년대 이후 가속화되고 있는 아시아 지역에서의 대중문화 흐름은 정치적 민주화와 경제 성장의 수혜를 받은 아시아 중산층의 비주위적 감수성이 인터넷을 비롯한 다양한 뉴미디어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촉발된 것이 볼 수 있다. 일본에서 4,50대 중년 여성들을 주축으로 형성된 배용준 팬덤의 원동력 역 중산층 여성들의 소비능력에서 비롯되었다고 하겠다.

따라서 초국적 문화흐름을 기반으로 새롭게 부상하는 문화적 정체성들에 대한 연구를 해서는 젠더와 계급의 문제, 인터넷을 비롯한 새로운 전자기술의 문제들이 조명되어야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 기술이야말로 전통적으로 정체성의 주요한 거점으로서의 지역을 어나 새로운 범위와 형식의 문화적 정체성들을 만들어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본 연구에서는 일본에서의 배용준 팬 커뮤니티를 대상으 이 집단의 문화적 정체성의 정치학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배용준 팬덤은 앞서 지적

바와 같이 문화적 세계화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팬덤의 성격을 고루 갖추었다. 여성들의 일상적 대중문화 소비의 차원에서 상상적으로 구성되는 초국적 문화공동체는 어떤 성격을 띠고 있는가? 특히 배용준 팬덤의 경우처럼 한일 간의 역사적 식민관계와 그로부터 비롯되는 복잡한 권력관계가 끊임없이 개입되는 경우, 팬들의 문화적 실천은 여타의 사회적 실천들과 접합되면서 어떤 효과를 낳는가? 이와 더불어 인터넷 기술에 기반한 온라인 커뮤니티의 형성은 초국적인 텔레비전 소비의 경험을 어떻게 확장시키는가? 텔레비전 시청이라는 개인들의 개별적 경험들이 팬 커뮤니티를 통한 스타와 팬, 그리고 팬과 팬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통해 어떤 문화적 실천들로 발전하는가? 등의 문제제기에 대한 답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2. 이론적 논의

1) 미디어의 수용과 자아성찰의 문화

오늘날 세계화는 자본과 인간, 미디어와 기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층위에서 이루어지는 이동성을 기반으로 현대인들의 시간 및 공간적 경험의 지평을 확장시키고 있다. 현실의 조건과 관계망이 무한대로 확장되고 부단히 변화하고 동요하는 가운데, 지속적인 자아성찰과 정체성의 프로젝트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 (Giddens, 1990; Lash & Urry, 1996). 전통적으로 생산관계에서 점유하는 위치가 정체성의 형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쇠퇴하는 반면, 라이프스타일의 동질성이나 문화적 취향의 공유와 같이 소비영역에서 발생하는 소속감이나 계층의식이 훨씬 중요해지고 있다 (Featherstone, 1990; Hall, 1992; Storey, 1999). 이러한 맥락에서 미디어의 소비는 정치적 관점과 사회적 행동의 틀을 제공하고, 사람들이 그들 자신의 정체성을 만들어내는 문화적, 상징적 자원으로서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

미디어가 수용자들의 주관적 경험과 정체성 형성에 미치는 역할에 대한 주목할만한 연구 결과들은 페미니즘 관점에서 수행된 일련의 여성 수용자 연구들에서 찾아볼 수 있다(cf. Bacon-Smith, 1992; Brundson, 1981; Jenkins, 1992). 레드웨이(Radway, 1984)는 여성 로맨스 소설 팬들이 그 독서를 통해서 가부장제적 결혼 구조 안에서 자신의 권리를 더 잘 주장할 수 있게 된다고 밝히고 있고, <캐그니와 레이시>의 팬들에 대한 다아시(D'Acci, 1989) 연구에서는 팬들이 자기의 자부심을 고양시키고 그림으로써 사회생활을 더 힘차게 하는 방향으로 그 쇼와 거기 출연하는 스타들을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피스크(Fiske, 1992)는 마돈나의 10대 소녀 팬들이 자신의 팬덤을 통해 자기 권능을 갖게 되고 그것을 사용하여 자신의 성이 갖는 의미를 스스로 통제하며 자신있게 거리를 확보할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하였다. 리브즈와 카츠(Liebes & Katz, 1990)는 <델러스>의 국제적 수용에 대한 연구에서 그 시리즈가 언제나 카메라의 뷰파인더처럼 바로 시청자 자신의 문제를 들여다보는 화면으로서, 가족구조, 여성의 역할, 그리고 우정의 의미 같은 주제들을 놓고 서로 토론하는 기회를 갖게 했다고 주장한다. 이리하여 그들은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자신의 가치와 입장을 확증하거나 새로 형성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대중문화는 원래의 기획의도와 상관없이 특정 사회의 고유한 중심적 주제를 표면화시켜 쟁점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고, 이러한 사회적으로 중요한 핵심 테마의 객관화는 자기 성찰과 인식에 기여

하게 된다 (Miller, 1992).

오늘날 초국적 미디어의 흐름은 상징적 자원을 통한 수용자의 주관적 경험의 영역을 국민국가의 경계를 넘어서서 다문화적 환경 속으로 확장시키고 있다. 특히 여성 시청자들에게 초국적 미디어 소비는 자국의 주류 미디어가 국가주의적이고 남성주의적인 시선으로 그려내는 여성들에 대한 재현이나 타국가와 타문화에 대한 재현의 틀을 벗어나 비판적인 자기 성찰과 타자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계기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유키에(2005)의 연구는 이러한 가능성을 <겨울연가>의 시청자(관객)이자 촬영지를 찾아가는 관광객이기도 한 여성들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그녀는 초국적 대중문화의 수용에 대해 젠더역학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자본주의와 국가는 소비자로서 여성을 조절하고 통제하지만 여성은 그러한 위치에만 그치지 않고 저항의 방식으로 소비문화를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녀가 인터뷰한 일본 여성들은 <겨울연가> 텍스트를 원래 맥락과는 다른 방식으로 읽고 의미를 재구성해나간다. 때로는 그것이 한국에 대한 '시선'이나 자신의 일상생활에 대한 '시선'을 크게 변화시키는 계기가 된다. 이웃 나라에 대한 편견이나 무지에 대한 자기 반성적인 태도가 드러나고, 한국 관광은 그녀들의 일상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경험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와부치(Iwabuchi, 2001)의 연구는 젠더적 관점을 전면에서 부각시키지는 않았다. 그러나 홍콩문화를 소비하는 일본여성들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 그가 주목한 것은 국가주의적인 담론이 만들어 온 일본의 우월성을 부정하는 그녀들의 태도였다. 이와부치는 그녀들이 홍콩 대중문화를 소비할 때 느끼는 동시공간성을 지적하면서, 그것이 일본 근대를 비판적으로 되돌아보며 자기 변혁을 일으키는 노력으로 이어진다고 해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연구들은 탈지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대중문화의 수용과 모방, 전유 과정에서 소비자본주의의 역학을 우회하는 탈자본주의적인 욕망, 하위문화의 스타일과 감수성을 매개로 한 새로운 자율적인 문화적인 실천과 상호이해, 연대의 가능성들을 읽어내려는 시도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이기형, 2006). 그러나 이러한 가능성들을 읽어내기 위해 구체적인 역사적, 사회적 수용의 맥락 속에서의 수용자 연구를 수행한 사례는 아직 풍부하게 축적되지 못했고, 특히 인터넷을 비롯한 뉴미디어 기술들이 초국적 미디어 소비를 집단적 경험으로서 공유하고 새로운 문화적 정체성의 형성으로 진전시키는데 어떻게 개입하는가에 대한 문화정치적 관점에서의 연구는 매우 드물다.

2) 인터넷 팬 문화와 젠더 정치학

미디어의 소비를 통해 다양한 사회적 정체성과 사회적 체험의 의미를 만드는 능동적 수용자에 대한 주장들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서로를 알지 못한 채 격리된 조건 속에서의 수용 경험들이 다른 사회적 실천들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실천의 한 양상으로 이해될 수 있는가에 대한 논란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맥퀘일(McQuail, 1997)은 대규모성, 익명성, 불안정성 등을 특징으로 하는 '대중' 수용자를 '집단'이나 '공중'으로서의 수용자와 구별하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구별의 지점은 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과 공동의 구성원 의식의 공유, 공공의 문제에 대한 관심과 의견을 가지고 토론에 참여하는 것 등이다. 피스크(1992)는 문화상품의 개별적 수용으로부터 형성된 사회적 정체성과 체험의 의미들이 먼대 먼 상황이나 구두 문화를 통해 발화되고 공유될 때, 가령 직장이나 학교의 동료들이 지

속적으로 특정 프로그램이나 악단, 배우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게 될 때, 공공적 형태를 취하게 된다고 본다.

오늘날 인터넷은 피스크가 말한 대화 공동체의 기술적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특히 공동체의 범위를 지리적으로 고립되고 분산되어 있는 초국적 미디어 수용자들로까지 확장시켜 탈지역적인 새로운 집단 정체성을 상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할 수 있는 기술적 가능성, 즉 ‘효율적인 문화간 커뮤니케이션의 형식으로서, 그리고 다문화적이고 간문화적인 정보의 광범위한 원천으로서’ 평가되어왔다 (Anderson & Kingsley, 1999).

이러한 인터넷의 잠재력은 특히 자신들의 목소리와 경험들이 주류 미디어에 의해 충분히 대변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고립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데 용이하는 점에서 페미니스트 연구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cf. Frederik, 1999; Travers, 1999; 장필화, 2002). 여성들의 힘기르기 실천(empowerment)의 일차적 요건으로서 언급되는 상호작용의 범위와 대상, 수준 등을 기존의 매체보다 확장시켜 새로운 자아와 집단 정체성의 형성 가능성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인터넷은 힘기르기 실천의 논의를 이끌어가기에 적절한 공간으로 지목되어왔다 (Surrey, 1991). 한편, 그로스버그(Grossberg, 1984; 1992)에 의해 제안된 ‘감성적 연대 (affinity alliance)’ 개념 역시 힘기르기 실천과 관련하여 여성적 하위문화/혹은 하부정치의 장소로서 인터넷 커뮤니티를 주목할 수 있게 한다. 힘기르기 실천의 네트워크인 감성적 연대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실천과 이벤트들로 연결되어 있으며, 우리가 감정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열고 구조화하는 문화적 양식과 사회적인 경험들의 조직이 바로 감성적 연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주장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 연구들로서, 웨이크필드(Wakefield, 2001)의 연구는 X-Files의 여성 팬들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참여함으로써 다른 여성들과의 우정을 쌓고, 함께 있음, 연결의 느낌, 소속감을 느낀다는 점을 밝혔다. 인터넷 커뮤니티는 여성들의, 여성들을 위한 공동체의 출발점이 된다는 것이다. 일본의 인기 그룹 스마프(SMAP) 소속 연예인 기무라 타쿠야의 인터넷 팬클럽 연구를 수행한 달링 울프(Darling-Wolf, 2004)는 시공간의 장벽을 제거하는 인터넷의 잠재력 때문에 서로 고립되어 있는 팬들이 가상 공동체에 참여하여 자신들이 좋아하는 유명인이나 캐릭터들과의 관계를 하나의 집단으로서 교섭할 수 있게 한다고 보았다. 그의 연구는 기무라 타쿠야의 인터넷 팬들이 스타의 이미지를 자신들이 처한 개별적 맥락 속에서 재해석하고 그의 행동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견지한 ‘능동적 독자’들이었음을 밝히고, 나아가 상이한 국가들과 문화들의 경계를 가로지르는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의식을 만들어내고 있음을 지적한다. 그러나 이러한 팬 커뮤니티의 구성원들은 일본을 아시아 대중문화 생산의 중심으로서 인식하고 있다는 점, 여전히 서구적 열굴에 의해 지배되는 전지구적 주류 문화를 인정하면서 자신들의 스타인 기무라 타쿠야가 서구 주도의 주류 문화 속에서 재현되고 수용되기를 열망하는 팬들의 의식이 나타난다는 점 등을 언급하면서, 팬 커뮤니티에는 일본과 아시아, 서구 사이의 비대칭적 권력의 삼각구도가 관찰되고 있다고 결론짓고 있다. 또한 팬 커뮤니티의 공용어가 여전히 영어라는 점은 상대적으로 중산계층과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로 커뮤니티의 구성원을 제한하는 효과를 낳는다는 점에서 계급적 특성 역시 나타난다고 보았다.

3. 연구 대상과 방법론

본 연구에서는 배용준의 일본 공식 팬 사이트의 게시판을 대상으로 담론분석을 수행하였다. 배용준의 일본 공식사이트(<http://www.yongjoon.jp>)는 배용준의 일본 소속사 IMX가 운영하고 있다. 2004년 2월 정식 오픈했으며 배용준 관련 뉴스, 사진, 캐릭터 상품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게시판은 일본 배용준 팬들의 정보 교환과 대화의 장으로 확고하게 자리를 잡고 있다.

2004년 말에는 해킹사고가 발생해서 운영이 한때 중지되기도 했다. 운영사는 이 때문에 2005년에 해킹 방지를 위해 ‘등록 ID카드제’를 도입했다. 인터넷을 통해 회원 등록을 한 후 2주후에 IMX가 우편으로 보내주는 등록ID가 있어야 게시판 이용이 가능하다. 게시판은 해킹사고가 발생한 2004년 말까지의 내용을 담은 과거 게시판(7만7623건)과 2005년 이후 게시판(4월 21일 현재 62425건)으로 구성돼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04년의 게시판 내용 중에서 100번 단위로 한 건씩 추출한 글들과 조회수 5000건 이상의 글들, 그리고 여기에 달린 댓글들을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했다. 2004년은 배용준에 대한 일본 사회의 관심이 정점에 달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2003년 4월 NHK 위성방송을 통해 일본에서 처음으로 선보인 <겨울연가>가 큰 인기를 얻자 2003년 말부터 재방송에 들어가게 되고 2004년 4월 NHK 지상파에서 방송된 이후 배용준의 인기는 정점에 달했다. 일본에서 드라마 방영 초기 주요 시청자층은 40대 이상의 여성들이었으나 NHK 지상파에서 방송된 이후에는 연령별, 성별로 다양한 시청자층을 확보하여 최종회의 시청률은 무려 20%를 넘었다 (NHK <방송문화연구와 조사>, 2004, 12). 일본에서 프라임 타임대에 방영되는 자국 드라마도 10%를 넘으면 성공했다는 평을 듣는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대단히 이례적인 성공이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2004년 5월에는 배용준 주연 영화 <스캔들>이 일본에서 상영되어 팬들의 주목을 끌기도 했다. 일본 미디어들도 배용준과 <겨울연가>의 붐에 대해서 큰 비중으로 취급하였다. 2004년 한 해를 결산하면서 일본 미디어들이 기억에 남는 10대 사건 또는 가장 비중있는 인물로 배용준과 <겨울연가> 붐을 꼽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사회적 파장이 얼마나 컸는지 짐작할 수 있다.

2005년 이후에도 배용준 팬덤은 열성적인 팬들을 주축으로 지속되고 있지만, 영화 <외출>을 제외하고는 뚜렷하게 주목받은 후속 드라마나 영화들이 없어서 미디어에서 다루어지는 빈도도 상대적으로 적어졌다. 또한 팬 사이트 해킹 사건 이후로 정식 회원등록이라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만 사이트에 참여할 수 있게 됨으로써 배용준 팬 사이트는 훨씬 폐쇄적인 성격을 띠게 되었다. 따라서 필자는 2004년 게시판의 글들이 배용준이 출연한 드라마 및 영화 텍스트, 이를 둘러싸고 일본의 다양한 미디어들이 쏟아낸 담론들, 그리고 배용준의 팬 집단 사이의 상호작용의 역동성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다고 판단하여 분석대상을 2004년 글들에 한정하였다.

게시판 분석과 병행하여 배용준 팬덤을 둘러싼 일본 사회의 주류적 인식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아사히>, <산케이>, <요미우리>, <마이니치>, <닛케이> 등 일본의 5개 일간지를 대상으로 ‘배용준’과 ‘겨울연가’라는 키워드 검색을 통해 추출된 기사들을 참조하였다.

4. 분석결과와 논의

1) 배용준 팬 커뮤니티의 특성

(1) 게시판 (BBS) 글쓰기의 여성성

배용준의 일본 공식 사이트에서 가장 활발하게 운용되고 있는 것은 게시판이다. 게시판에는 IMX가 배용준의 공식 일정이나 발언, 미디어 기사 관련 해명 등을 알리는 공지란과, 팬들이 직접 자신들의 글을 게재하는 란 등이 포함되어 있다. 2005년부터 게재된 글들은 현재도 조회수가 기록되고 댓글달기도 할 수 있도록 활성화되어 있지만, 2004년 게시판 글들은 별도의 란으로 구성되어 열람은 가능하지만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게시판은 일차적으로 IMX의 공지나 팬들이 올리는 정보를 서로 공유하는 기능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팬들이 자신들의 감상이나 의견을 올려 다른 팬들의 의견이나 조언을 듣는 공간으로서 활용되는 측면이 더욱 뚜렷하다.

IMX측은 게시판의 운영원칙에 대해 “배용준이나 출연 작품 등에 대한 감상이나 의견, 배용준에게 보내는 메시지나 팬끼리의 교류에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사실과 다른 내용의 기재, 비방 중상, 허가가 없는 선전 및 광고, 그 외 저작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이용자를 불쾌하게 할 가능성이 있는 내용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가십성 기사나 저작권에 저촉되는 게시물은 관리자인 IMX에 의해 검열, 삭제되지만,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충실하게 따르고 다른 회원들의 글을 검열하는 문화가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게시된 글들을 보면 자신이나 다른 팬들의 글이 이 사이트의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 것인가, 혹시 삭제해야 하는 것 아닌가 라는 질문들을 흔히 접할 수 있다. 특히 인신 공격성 발언이나 프라이버시 침해의 소지가 있는 발언들에 대한 회원들 간의 상호 검열은 대단히 엄격하게 작용하고 있다.

일군의 인터넷 연구자들은 게시판을 여성의 사이버 공간에 대한 남성들의 침범을 피하는 수단의 하나로 간주해왔다 (cf. Biedly et al., 1999; Clerc, 2000). 게시판의 대화는 반드시 실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채팅방이나 전화 대화와 다르다는 것이다. 참여자들은 집단의 다른 구성원들이 로그인했을 때 읽을 수 있도록 게시판에 메시지들을 올려놓는다. 결과적으로 참여자들은 채팅처럼 즉석에서 생각하지 않고 과열된 토론에 참여를 덜 하게 된다 (Biedly et al., 1999). 또한 게시판은 감시될 수 있고 논쟁적인 메시지는 삭제된다. 따라서 게시판은 여성팬들이 온라인 상에서 추구하는 상호작용과 커뮤니티 구성에 특히 잘 맞는다는 것이다 (Clerc, 2000).

배용준 사이트의 게시판 글들 중에는 논리적이고 점잖은 표현을 쓰며, 문법적으로도 올바르게 쓰여진 글들이 많고, 다른 사람들의 글들도 꼼꼼히 읽어볼 수 있다는 게시판의 특성이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게시판 글쓰기 윤리를 위반한 글들에 대해 삭제할 수 있다는 점도 게시판의 질서를 유지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

게시판의 공용어는 일본어였지만, 한국인들도 종종 게시판에 들어와 글을 남겼다. 물론

일본어는 물론이고, 한국어도 잘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어와 한국어를 번갈아가며 글을 올리고 있었다. 비록 완벽한 의미전달은 힘들지만 서로 의사소통하는데 어보였다. 팬들은 이와 같이 자동 번역을 통한 소통을 염두에 두고 글쓰기를 하기 때문에

문법에 맞는 언어를 구사하는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도 해석된다.

(2) 중년 여성 공동체로서의 인식

배용준 팬 커뮤니티의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는 팬으로서의 개인적 경험과 감정들을 다른 팬들과 공유함으로써 집단적 소속감과 연대의식을 느끼려는 욕구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가족이나 사회로부터 소외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이 커뮤니티에서 배용준 팬으로서의 동지의식과 가족애를 발견하고 있다고 고백하는 글들을 흔히 볼 수 있다.

“이제 더 이상 혼자만 아니예요. 전도-여기에 오기 전에는 ‘사랑’같은 말 부끄러워서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용준씨의 아름다운 마음과 삶에서 나온 훌륭한 연기에 감동했고 저와 같은 생각 (용준씨에 감동한)을 다른 사람과 공유함에 의해 한층 더 기쁨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사랑’이고 ‘가족’입니다. 지금까지 개인과 개인의 사이에 있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랑’이란 것은 공유함으로써 사람을 좀 더 행복하게 해 줍니다. 용준씨도 전번에 그렇게 말씀하셨었어요! 늘 함께 용준씨를 지켜보는 가족이 되어요!”

특히 이러한 집단적 소속감은 여성 팬들 사이에서 두드러지게 피력되고 있다. 팬 사이트 가입은 개방되어 있어서 성별이나 나이, 국적 등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그러나 게재된 글들에서 이 공간의 주체를 누구로 인식하는가와 관련해 볼 때 배용준 팬 사이트는 명백히 일본 여성 수용자들이 주축을 이루는 공간이다. 특히 연령대에 있어서는 중년 여성들의 공간이라는 인식이 암묵적으로 공유되어 있다. 이러한 암묵적 인식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팬들이 게시판에서 다루고 있는 이슈들이, 배용준을 둘러싸고 가정에서 남편이나 다른 가족들과 겪게 되는 에피소드, 배용준의 남성적 매력에 대한 여성들의 토론, 배용준의 여자친구에 대한 관심 등 여성적 관점에서 선호되는 것들이라는 점에서 잘 드러난다.

대표적으로 영화 <스캔들>이 상영되면서 팬들 사이에 일어난 배용준의 남성성에 대한 관심을 들 수 있다. 영화 <스캔들>은 첫 장면에서부터 배용준의 정사썸이 등장하는 등 배용준의 남성성을 강조하는 노출과 정사썸으로, 순수한 청년으로서 <겨울연가>의 준상 이미지에 익숙해 있던 일본 팬들은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해 논란을 벌였다. 일례로 “허벅지의 털”이라는 제목으로 게시된 글은 <스캔들>에서 목격하게 된 배용준의 남성성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당황해하는 모습을 잘 보여준다.

“나는 (영화가 시작되자마자 나온 썸의) 윤사마의 허벅지를 보고 싶지 않았다. 영화를 보러 가기 전에는 (겨울 연가속의) 준상에 매료되어 있지만 앎고 용준씨 자체를 좋아한다고 생각했다.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호언장담했다. 그러나 역시 준상씨를 좋아했던 것일까.

오늘 밤 깊이 생각하고 있다.”

반면, 상당수의 팬들은 배용준의 남성적인 매력에 대한 호감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배용준의 남성성에 대한 자신들의 호감을 능력있는 배우로서의 다양한 연기 변신에 대한 호감이라는 식으로 정당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신들은 <겨울연가>의 특정 캐릭터가 아닌

배우 배용준의 팬이라는 점, 따라서 극중의 역할에 따라 순애의 이미지가 부각될 수도, 남성성이 부각될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다.

여성 팬들의 관심사를 잘 드러낸 또 다른 이슈 중의 하나는 배용준의 여자친구에 대한 기사가 일본 언론들에 실리고 이를 배용준이 공식 인정한 사건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이에 대해서 많은 팬들은 한편으로는 ‘남자라면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자연스러운 일이다’, ‘누구나 엄마와 같은 입장에서 배용준이 여자친구를 사귀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보인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여자친구가 이십대 초반이라는 지나치게 젊은 나이라는 점이 못마땅하다’, ‘결혼 시기는 몇 년 후로 미뤄줬으면 하는 마음이다’는 식으로 불편한 심기를 인정하는 등 양면적인 감정을 드러내었다.

여성적인 이슈가 빈번하게 게재되고 있다는 점과 더불어 중년 여성적 공간의 성격을 드러내는 또 다른 예는 일본 남성들에 대한 비판적 관점과 공격적인 어조들에서 발견된다. 배용준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남편이나 언론사의 발언 대해 이들이 같은 남자로서 배용준을 질투하여 악의적인 발언을 한다고 주장하는 글들을 종종 발견할 수 있었다. 한 잡지에 실린 배용준 비판 보도에 대해서, ‘가십성이 농후한, 남성용 잡지’라고 비판하는 경우나, 일간지에 실린 비판적 칼럼을 읽고 다음과 같이 게재한 글들은 이러한 예에 속한다.

“인기 없는 중노년 남성의 질투일까 라고도 생각합니다. (...) 한국의 열풍을 불쾌하게 생각하는 남성이 많은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당연할지도 모릅니다. (...) 마루야마씨 (*칼럼 필자*), 문쥬는데 여성이 멋진 스타에게 사랑을 느끼고, 행복한 기분이 되는 것이, 왜 안 되지요? 당신도 지지 말고 멋진 여성에게 사랑을 느껴보면?”

“같은 아시아의 남성보다는 뛰어나고 싶다는 생각인지 그 심정은 잘 모르겠다. (...) 오늘 한 마디라도 사과하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권에 자주 여행하러 가서 느끼는 것은, 최근의 일본 남성에게는 그만한 매력 없어진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 가장 인기있는 남자 배우 중의 한 명인 스마프 멤버 기무라 타쿠야를 배용준과 비교하면서 올린 글들에서도 일본 남성들에 대한 비판적 시각은 잘 드러난다. 기무라 타쿠야가 배용준과 합작 드라마에 출연한다는 소문의 진위를 놓고 많은 팬들이 게재한 글들에서는 타쿠야가 외모적으로 뒤쳐질 뿐만 아니라 성격도 천박하여 가벼운 트렌디 드라마에나 어울리는 배우로서, 품격있는 배용준과의 합작은 말도 안된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일반적으로 인신 공격성 발언이나 과격한 어조의 글들에 대해 상호 검열이 강력하게 작동하는 것과 달리 위에서 언급한 다양한 사례들에서 팬들의 어조는 상당히 공격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상호 제재가 취해지지 않았다. 이는 이 커뮤니티의 구성원들이 배용준의 여성 팬들에 대한 일본 사회의 비우호적이고 공격적인 인식을 강하게 의식하고 있고, 특히 이러한 인식의 주체를 일본 남성들로 간주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3) 격려와 인정의 문화

게시판의 두드러진 특징 중의 하나는 회원들 상호간의 격렬한 논쟁이 거의 벌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논란의 소지가 있는 민감한 이슈를 IMX와 회원들 스스로가 검열하고

차단하여 상호 공유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원천 봉쇄되어 버리기 때문일 뿐 만 아니라, 회원들 스스로 게시판의 성격을 논쟁보다는 상호 격려와 인정의 공간으로 인식하는데서 비롯된다고 보여진다. 수백 건의 댓글이 달리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지만 그 내용들은 대부분 게시글에 대한 공감을 표현하거나 지지의견을 덧붙이는 글들이다. 반면에 논쟁을 촉발시킬 수 있는 소지의 글이 실리거나 게시글에 반론을 제기하는 댓글이 실리는 경우 대부분의 회원들은 배용준 팬 사이트로서의 성격에 맞지 않는다고거나,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상하게 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는 방식들을 통해 논쟁의 진전을 막는다. 예외적으로 공격적인 어조와 신랄한 비판의 내용들이 허용되는 경우는 대부분 일본 언론과 같은 외부를 겨냥하는 글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점들로 미루어 볼 때, 배용준 팬 게시판은 팬들 상호간에 감정과 의견을 공유하여 집단적 확신을 갖게 하고 외부에 대한 비판적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지만, 내부적으로 상호 비판과 논쟁의 문화는 매우 취약하여 보다 첨예한 문제의식으로까지 성찰의 수준을 진

일례로 2004년 8월 IMX 사가 배용준 상품 기획과 관련하여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기
짜 상품이 한국 제품의 이미지를 해칠 수 있어서 공식적으로 질 높은 상품을 유통시켜 시
을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을 때 게시판에 실린 팬들의 반응은 이를 잘 보여준다. 한
회원이 기획사 측의 이러한 입장에 대해 배용준에 대한 자신들의 진심이 상업적으로 이용된
다는 사실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내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글을 실었다.

“윤사마 상품 발매 뉴스를 보고 질렸습니다. 윤사마가 자신의 이미지를 소중히 하신다면,
상품 판매는 최악의 방법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팬 문화는 문화산업의 상업적 이익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팬들의 문화적 취향은
문화산업의 경제적 이익에 봉사하는 방식으로 통합되지만, 이러한 산업측의 시도와 산업
의 생산물들을 배척하려는 팬들의 시도 사이에 벌어지는 갈등은 항상 존재한다 (Fiske
1992). 따라서 위와 같은 팬들의 반응은 이와 같은 갈등이 표출되어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팬 문화가 가지는 양면적인 기능, 즉 한편으로는 팬들의 문화적 취향을 충족시키는데 봉사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산업의 경제적 이익에 봉사하는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는 지점이
도 하다.

그런데 초기의 몇몇 댓글은 이러한 의견제시에 공감을 표현하였지만, 이후 대다수 댓글
들은 자신들이 처한 이중적 위치의 모순성을 직면하는 것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여준다.
“용준씨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으면 이러한 논쟁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러
한 비판적인 의견이야말로 용준씨가 좋아하지 않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침착해 주시
요.”, “비판하는 것은 오히려 간단한 일입니다.”, “냉정한 시각이네요.” 등의 댓글들은 이러한
문제제기 자체의 중요성을 인정하지 않거나, 배용준 팬으로서의 자격을 의심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면서 일찌감치 논쟁의 진전을 차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이 게시판에 대한 상호 격려와 인정의 공간으로서의 인식과 논쟁을 회피하는 태
도는 아래에서 살펴보게 될 가족담론과 접합되어 비판적 성찰의 가능성들을 더욱 강력하게
방해하는 효과를 낳고 있다.

5) 가족 공동체로서의 팬 커뮤니티

(1) 국적성이 부각된 배용준의 이미지

세계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문화산업의 주요한 전략 중의 하나는 국적성이나 문화적 특수성을 최대한 감추는 것이다. 이와부치(2001)는 일본 문화산업이 세계 시장에서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비결로 ‘특정 문화의 색채를 띠지 않는다’는 점을 꼽았다. 문화상품을 소비할 때 특정 생산국의 정형화된 문화적 특징과 생활양식의 이미지가 긍정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가의 문제를 감안하여, 일본 스스로가 해외 시장 진출 전략으로서 ‘일본색’ 지우기를 선택했다는 것이다. 물론 이와 반대로 문화적 색채를 불러일으키는 전략이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이는 미국처럼 강대하고 문화적으로 매력있는 나라의 이미지를 문화 소비 단계에서 함께 소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 이미지에 자기를 동일시하는 쾌락을 불러일으킬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최근 아시아 시장을 비롯해 세계 시장에서 활약하고 있는 한국 스타들의 경우에도 한국이라는 국적성이나 문화적 색채를 드러내지 않는 전략이 사용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일본 아벡스(avex)사와 한국 에스엠(SM) 기획의 공동 프로듀스로 등장한 가수 보아는 일본에서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무국성(nationless)’의 이미지를 구축하여 높은 인기를 끌었다(유키에, 2005, p.56-57). 그러나 일본에서의 한류를 둘러싸고는 한일 양국 간의 복잡한 정치적 권력관계 속에서 이를 활용하려는 시도들이 개입되면서 국적성을 부각시키는 담론들이 대거 생산되었다. 이러한 시도는 한류를 국력 과시용으로 활용하여 과거 식민지 경험에 대한 심리적 보상을 받고 독도문제 등 당면한 정치현안에 대한 여론 환기와 지지를 불러일으키려는 한국의 입장과, 대중문화의 교류를 통해 한일 화해 무드를 조성하여 과거사 청산 문제를 적당히 회피하고 일본 대중문화 개방을 끌어내려는 일본의 입장으로 대별될 수 있을 것이다.

2005년 3월 배용준 주연의 영화 <외출> 기자회견에서 배용준은 기자들로부터 ‘독도는 어느 나라 땅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을 받았다. 그는 그 자리에서 답변을 회피했지만, 며칠 후 자신의 홈페이지에 ‘독도는 대한민국 땅’이라는 답변을 올렸다. 이 에피소드 이외에도 배용준은 수많은 인터뷰에서 식민지 역사와 교과서 왜곡 문제 등 한일 간의 정치적 현안들에 대해 의견을 피력해왔다. 물론 대부분의 발언들이 심도깊은 정치적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었고 상당히 모호하게 얼버무려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러한 배용준의 발언은 한일 양국 미디어에 의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으며 이를 둘러싸고 다양한 사회세력들의 후속 담론 또한 활발하게 생산되었다.

한류 스타들 중에서도 유독 배용준 팬덤을 둘러싸고 국가주의적 담론 개입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은 일반적인 팬덤의 경우나 한류의 다른 사례와 구별되는 배용준 팬덤의 특성에서 기인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지금까지 국제적 팬덤의 주류는 선진 제국의 남성 스타를 숭배하는 제 3세계 여성이라는 구도로서, 이는 기존의 불균형적인 국가권력 관계가 젠더관계로 순치된 형태를 띠고 있다면, 일본에서의 배용준 팬덤은 한국의 남성 스타와 일본의 여성 팬이라는 관계 속에서 기존의 국가권력관계와 상치된 젠더 관계의 형성이라 하겠다. 한류의 다른 사례들도 기존의 한일관계 구도 속에서 보자면 새로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보

아처럼 여성 스타의 경우이거나, 흔히 여성화된 부드러움으로 재현되는 10대나 20대 초반의 남성스타의 경우는 역전된 힘의 관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상대적으로 강하지 않다. 반면, 배용준의 경우는 30대라는 연령대와 진지하고 신뢰를 주는 이미지, 건장한 육체로부터 나오는 카리스마를 갖추고 있어 그에 대한 일본 여성들의 숭배는 한일 양국 간의 권력관계와 상치되는 성적 권력관계를 부각시킴으로써 훨씬 더 공격적이고 전복적인 사건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를 갖게 되었다고 해석해 볼 수 있겠다.

(2) 배용준 팬 커뮤니티의 가족 담론

“저는 그분들을 가족이라고 생각해요. 아무 조건 없이 저를 믿어 주고, 무슨 일이 생겨도 믿어 줘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가족밖에 없잖아요. 그분들도 저를 가족으로 생각할 겁니다. 가슴으로 느끼실 겁니다”

배용준은 언론과의 인터뷰나 팬 게시판에 올리는 글을 통해 항상 자신의 팬들을 ‘가족’으로 지칭하였다. 이 말은 팬들 사이에서도 널리 받아들여져 여성 팬들은 자신들을 배용준의 어머니 또는 누나로서 위치지으면서 자신들의 집단을 가리키는 공식명칭으로 사용하고 있다. 팬 커뮤니티에 대한 다른 연구들에서도 볼 수 있듯이 커뮤니티 구성원들이 자신들을 ‘우리’로, 스타를 ‘우리 사람’으로 표현하는 것은 일반적 현상이다 (Cf. Wakefield, 2001; Darling-Wolf, 2004). 그러나 배용준 팬덤에서 ‘가족’이라는 표현은 소속감이나 연대의식을 담고 있는 다른 팬덤에서의 ‘우리’라는 용어에 비해 특수한 담론효과를 낳는다.

무성애적 관계로서의 가족

가족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배용준과 팬 집단을 무성애적(sexless) 관계로 설정함으로써 한국 남성과 일본 여성의 이성애적 결합이라는 구도로 해석하려는 다양한 시도들에 대한 방어적 효과를 갖는다. 비록 미디어를 매개로 하여 상상적 차원에서 작동하는 연애감정이라고 하지만 가정있는 중년의 여성들이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의 사랑을 꿈꾼다는 것은 사회적 비난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물론 배용준은 <겨울연가>에서의 순애 이미지를 통해 부드러운 남자로서 표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한 남성성을 보여주고 있다.

지금까지 한일 양국 사회에서 익숙하게 받아들여져왔던 국제적 로맨스 구도로는 서구의 백인 남자와 아시아 여성, 또는 일본의 남성과 한국의 여성의 결합을 들 수 있다. 이런 식의 결합은 서구와 아시아, 그리고 일본과 여타 아시아 국가들, 즉 중심부와 주변부 국가 사이의 힘의 불균형 관계가 성적인 불균형으로 순차되어 나타난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불균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지만, 이미 오랜 기간에 걸쳐 불균형에 대한 인식이 내면화되어 있어서 자연스러운 시선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이데올로기가 작동한다. 그러나 배용준 팬덤을 바라보는 한일 양국의 시선은 - 과시적인 감정이든 또는 불편한 심기이든 간에 - 한국 남자와 일본 여자의 이성애 구도를 과도하게 강조하는 경향을 드러내는데, 이는 사회적으로 내면화된 불균형적 권력관계가 도치된 형태의 성적 결합 구도를 경험하는 데서 오는 생경함과 불편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들을 고려해 볼 때, 배용준에게 있어 가족 담론은 한편으로는 일본 사회의

반발과 저항의 목소리들이나 여성들의 자책감 등을 최소화하면서 일본 시장에 안정적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전략적 방편이었다고 볼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일본 여성 팬들의 입장에서 볼 때, 가족 담론의 생산은 멸절한 가정주부가 외간 남자를 함모하는 상상을 한다는 식으로 분별력이나 지각없는 여성들의 탈선이라는 개인적 문제의 틀로 해석되는 것에서 벗어나서, 일본의 급격한 근대화의 파생물로서 가족 공동체를 비롯하여 다양한 사회적 공동체의 해체에서 오는 현대인들의 소외라는 사회적 문제들을 부각시킬 수 있었다. 배용준 팬들 뿐만 아니라 학계, 언론계 등에서 일본 여성들이 남편과 자식들의 무관심이나 젊은 세대와 남성 중심의 사회로부터 느끼는 소외감에 대해 문제제기하면서 (젊은 세대의 취향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는 방송의 문제를 포함해서), 배용준 팬 커뮤니티가 유사 가족 관계의 감정을 느끼고 공동체 가치에 대한 향수를 충족시켜준다는 해석들을 하게 된 것은 바로 이러한 가족담론의 문제를 속에서 가능한 것이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가족 담론은 배용준 팬덤을 국가주의적이고 이성애 중심적인 관점에서 의미부여하려는 다양한 세력들의 개입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영향받지 않으면서, 여성 팬들이 기존의 이분법적이고 배타적으로 구축된 다양한 경계들을 자유롭게 넘나들면서, 내부적으로는 근대화의 부산물로서 가족 및 다양한 공동체 문화의 해체 문제에 대한 비판적 성찰의 계기를 만들고, 외부적으로는 타자로서의 한국에 대한 다양한 통념을 깨고 새롭게 인식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여성 팬들의 인식이 일본과 여타 아시아 국가들 사이에 그어진 배타적 경계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지금까지 사회적 터부로 인식되어왔던 중심부 국가 여성의 주변부 국가 남성애에 대한 사랑이 기존의 안정적인 힘의 관계들에 대한 도전으로서 전복적인 힘을 지닌다는 성찰적 인식에 도달하지 못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념 대립을 초월하는 용서와 화해

“우리들 한국인이, 일본으로부터 받은 과거의 식민지 지배를, 그것은 모두가 옛일이라고 결론내서 생각하기에는 너무나도 상처가 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과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재이고, 더욱이 현재보다 중요한 것은 미래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반일감정과는 별도로 일본으로부터 배울 점은 배우자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04년 7월 잡지 <젠다이>의 배용준 인터뷰)

배용준은 한일 간의 식민 역사에 대한 대중적 기억과 독도문제, 신사참배, 정신대 문제, 교과서 왜곡 등 다양한 정치적 현안들에 대한 양국의 논란에 깊숙이 개입되었다. 독도 문제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 사건을 비롯해서 언론들로부터 늘 정치적 입장의 선명성을 요구받았고, 그의 발언들에 대해서는 과도한 정치적 의미들이 부여되었다.

따라서 배용준에 대한 팬들의 관심 역시 자연스럽게 한일 양국의 정치사에 대한 관심으로 전환되는 경우를 종종 발견할 수 있다. 지금까지 한국에 대해 무심하거나 편견에 사로잡혔던 자신들에 대한 반성과 사과의 글들이나 새롭게 발견한 한국의 이미지에 대해 받은 충격을 고백하는 글들이 자주 게재되었다. 그 중의 하나로 재일한국인의 문제에 대해 다루고

있는 글들을 들 수 있겠다.

팬들은 과거의 일상적 경험 속에서 친구였거나 애인이었거나 가까운 지인이었던 재일 한국인에 대한 호의적 기억들을 떠올리면서 그들에 대한 긍정적 유대감을 피력하였다. 개인적인 경험을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재일한국인의 문제를 꼬집어내는 것은, 리빙스톤(Livingstone,)의 주장처럼, 일반적으로 추상적 도덕적 판단을 선호하는 남성에 비해 맥락에 기반하여 추론하고, 문제에 대한 합의와 추상화된 해결을 추구하려는 남성들에 비해 개인적이고 상황적인 내러티브를 음미하는 여성적 특징들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 한편, ~~개인한국인이, 선견적 문제, 더 현실적인 차별의 문제를 다룰 뿐만 아니라~~ 방영되자, 배용준이나 <겨울연가>를 연상시키는 '주인공과 장면 연출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시청하게 되었다가 재일한국인의 문제에 대해서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다는 고백들도 많았다. 또한 배용준 붐에 힘을 얻어 팬 커뮤니티에 참여할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는 재일 한국인들의 고백과 그들을 격려하고 환대하는 일본 팬들의 글들도 줄을 이었다.

이와 같이 <겨울연가>와 배용준으로부터 <도쿄완결>로 이어지는 일련의 대중문화적 소비를 통해 팬들은 한일 양국 사이에, 그리고 재일 코리언을 포함하는 삼자 사이에 새로운 관계성을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의미실천들을 수행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배용준 팬들의 관심이 단순히 한 개인으로서의 배용준에 대한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매개로 촉발되는 다양한 정치적, 사회적 이슈에 대한 관심으로까지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팬 커뮤니티 회원들 간의 상호 이해와 포용, 인정의 문화와 같은 여성적 특성들이 다양한 형태의 갈등과 대립을 넘어서 용서와 화해의 관점을 끌어내는데 크게 작용할 뿐 만 아니라, 가족 담론은 이러한 성격을 더욱 배가시키는 효과를 낳고 있다는 것이다. 국가들 간의 권력관계를 둘러싼 다양한 정치적 갈등과 대립도 배용준을 좋아하는 한 가족이라는 명제 앞에서 무력화된다.

“과거의 잘못을 알고, 우리의 뿌리에 남아있는 오만을 알아차립시다. 그리고,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를 사랑하고, 소중히 하고, 이웃나라,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의 나라들도 존중하고 소중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과거를 깊게 반성해, 일본이 준 굴욕을 진심으로 사죄하고, 지금부터 아시아의 나라의 일원으로서의 우호 관계를 쌓아 나가고 싶다고 진심으로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일본 사회에서 늘 까다롭고 민감한 문제로서, 공식적으로 문제제기되지 못하고 은밀하고 조심스럽게 말해져온 재일 한국인이라는 소수집단의 문제를, 정치적 관심과 이해로부터 상대적으로 거리가 먼 배용준의 여성 팬들에 의해 이슈화할 수 있게 한 추동력이었다는 점은 배용준 팬덤의 문화정치적 함의를 잘 드러내준다.

그러나 이와부치(2004)는 최근 일본에서의 <도쿄완결> 방영을 지켜보면서 한류가 재일 한국인, 자이니치 문제를 성찰하는 계기를 가져왔지만, 이것이 차별의 역사를 진지하게 되돌아보게 하거나 일본 사회 내부에서 일본인의 민족성을 근본부터 뒤흔드는 계기를 발전하지는 못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재일 코리언의 존재는 한국이라는 시각을 통해 주로 응시되며 양국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사람들의 갈등은 인식되지 않는다. (...) 일본은 ‘재일 한국인’이라는 타자가 존재하는 사회임을 인정하면서, 그 존재는 일본을 형성하는 핵심 부분과 분

리된 완전한 타자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배용준 팬 게시판의 글들 역시 이러한 이와부치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팬 게시판에 나타난 재일한국인에 대한 관심은 배용준과의 관계 속에서만 의미부여될 뿐, 이를 넘어서는 단계로까지 발전하지 못하였다. 그녀들의 인식 속에서 재일한국인은 배용준과 같은 한국인이라는 데서 오는 반가움과 친밀함의 대상으로서 자리매김되고, 소수집단 승인의 정치를 둘러싸고 일본 사회 내부에 존재하는 긴장과 첨예한 갈등에 대한 인식으로 진전되지는 못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과거 속에서의 개인적 경험으로서 재일 한국인에 대한 기억들을 회고하고 공유하는 것에 대해서는 허용하는 분위기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지금 현재 모든 일본인들이 함께 목격하고 있는 대상으로서의 재일 한국인의 문제를 끄집어내는 데는 큰 경계심을 보인다는 점에서 잘 드러난다. 일례로 일본의 유명연예인 ‘기무라 타쿠야가 재일한국인인가’라는 글이 게시되자 많은 팬들이 이에 대한 논의를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문제로 규정하고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다.

“몰라도 되는 것은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개인과 관계되는 문제는 인권에도 관계되므로, 이러한 화제는 부적절하고 가이드라인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삭제합니다. 임혀지는 분의 기분도 배려합니다. 조금 냉정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좀 더 글로벌적인 사고를 부탁드립니다.”

재일교포 3세가 게시판에 올린 다음의 글은 한류를 계기로 일본 내에서 자신들의 존재가 환기되는 계기를 맞았지만 이것이 오히려 자신들의 사회적 위치를 모호하게 과거 속에 묻어버리는 효과를 낳는 현실 상황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적 인식을 잘 드러내준다.

“겨울 소나타의 위력은 정말로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한국에 흥미를 가지고 있지 않았던 일본인이 한국에 흥미를 가지게 하는 역할을 한 것도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인해, 한반도와 일본 사이에 있었던 과거도, 재일 코리안도, 점

인과 일본인은 사이 좋게 될 수 있을지도

재일코리안의 존재, 북한이나 재일 코리안은 앞으로도 반영구적으로 일본에 계속 일한의 가교의 역할을 한다든지 하고져 가는구나하는 슬픈 느낌이 듭니다. 저 코리안의 존재가, 더욱 애매한 상태로 이상을 받아줍니다.”

야기일 뿐일지도 모릅니다. 그 때문에 지금 한국도 모릅니다.

그러나, 식민지 지배의 결과로서의 북한의 고립과 리안에게 놓여져 있는 현재의 납득할 수 없는 상황 존재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겨울 소나타가 말해지는 것을 들을 때 마다 많은 문제들이 잊혀지는 (겨울 소나타가) 북한의 고립의 원인과 재일 과거로 묻어버리는 받아줘 역할을 하는 것 같은 이

가족담론의 계급성

가족 담론은 다양한 담론 실천들과의 접합을 통해 지배적 담론으로서의 위치를 유지할 있는데, 대표적인 담론실천의 하나는 배용준의 직접적인 발언과 이를 매개로 팬들이 계

수

시판에서 생산하는 글을 통해서이고, 다른 하나는 <겨울연가>를 비롯하여 한국 드라마 텍스트들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배용준은 다양한 자리에서 자신의 팬들을 가족으로 표현했지만, 이것이 일본 팬들에게 크게 소구할 수 있었던 것은 팬들이 이미 드라마 텍스트의 수용을 통해 가족공동체적 가치를 발견하고 의미부여하는 경험을 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배용준이 극중 배역을 통해 어떤 성격의 가족가치를 재현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본 팬들은 <겨울연가> 속에서 일본 사회에서는 이미 사라져버린 끈끈한 가족애를 발견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사실 이 드라마가 한국에서 방영되었을 때 한국 팬들은 도회적이고 감각적인 스타일의 젊은 남녀 사이의 사랑이야기를 읽어냈다는 점과 비교해 볼 때 가족적 가치에 주목한 일본 팬들의 해독은 흥미롭다. 배용준은 <겨울연가>에서 자신의 친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즉 상실한 가족관계를 복원시키는데 매달리는 인물인 준상으로 그려진다. 그러나 준상은 교통사고로 기억을 잃어버리고 민형이라는 새로운 인물로서 거듭나게 된다. 민형은 어머니에 의해 주입된 재미교포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갖고 미국에서 건축학을 전공하고 귀국해서 건설회사 대표를 맡는 인물이다. 이전에 출연했던 <호텔리어>라는 미니시리즈 드라마에서도 배용준은 <겨울연가>의 민형과 비슷한 인물, 즉 재미교포 실업가 역할을 맡은 바 있다.

따라서 배용준을 통해 구현되는 가족공동체의 미덕은 결코 근대화와 물질문명의 쾌적함이나 세련됨에 배치되는 것이 아니다. 배용준을 포함해서 한국 드라마 속의 인물들은 물질적 풍요와 세련된 라이프스타일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전통적인 가족 공동체의 가치 역시 보존하고 있는 인물들로 그려진다. 드라마 속에서 일본과 유사한 라이프스타일을 가진 한국인들이 세련된 의상을 입고 세련된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는 모습을 통해 일본 팬들은 가깝고도 먼 나라 한국의 모습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다. 요컨대 일본 팬들의 상상 속에서 경험된 한국은 일본 못지않게 근대화된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일본 사회에서는 이미 상실된 공동체의 순수한 인간관계가 남아있는 나라인 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통해 볼 때, 배용준 팬덤의 가족담론에서 나타나는 가족에 대한 향수는 결코 전근대적이고 낙후된 시기의 끈끈한 인간관계에 대한 그리움이 아니라, 자본주의 소비문화의 감수성과 문화적 취향을 공유하는 중산층 의식과 문화적 욕구의 표출에 다름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일본 팬들을 통해 한국에 대한 새로운 발견이라고 말해지는 뉴코리아의 이미지는 이러한 문화적 욕망이 투사되어 공유된 상상적 산물로서, 그 내부에서 여전히 계급배제적인 성격이 포착된다고 하겠다.

5. 나가면서

“아시아가 하나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은 정서적으로 안 맞는 시장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받아들이고 즐겨워했지만... 일본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겨울연가>를 보고 아시아 사람들이 다 같이 공감했다는 건 정서가 비슷하다는 얘기거든요. 아시아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된 거 같습니다. 우리나라 감독님들이나 제작하시는 분들이 이제 아시아를 하나로 보고 제작했으면 좋겠어요” (2004년 4월 일본 방문시 배용준 인터뷰)

아시아 지역 내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대중문화의 흐름은 비단 국제정치나 문화산

업의 지형에서 뿐만 아니라 아시아 대중들 차원에서 상호 새로운 인식과 공감의 계기를 가져오고 있다는 긍정적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에서의 배용준 붐을 통해 일본 팬들은 개인적 성찰이나 자국 사회에 대한 비판적 인식의 계기를 맞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일의 과거 역사로부터 한국인들의 일상 문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차원에서 한국에 대한 새로운 성찰의 기회를 갖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지금까지 남성 중심적이고 엘리트 중심으로 맺어져온 국제관계로부터 상대적으로 주변부에 위치하거나 배제되어온 여성들이, 인터넷 기술이나 자동 번역 소프트웨어의 개발에 힘입어 지리적, 언어적, 문화적 장벽을 넘어서 대중문화를 매개로 하는 새로운 국제적 장을 주도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특히 온라인 커뮤니티는 미디어의 소비가 개인적인 수준의 일회적 체험으로 끝나지 않고, 새로운 집단적 의식과 감정적 연대를 낳는 상징적 자원으로서 활용되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배용준 팬 커뮤니티에서 나타나듯이, 팬 커뮤니티의 여성주의적 형식과 가족담론을 통한 집단적 정체성의 구성은, 기존의 국가주의적이고 남성주의적인 관점에 의해 형성되어온 국제 정치의 역학에 도전하는, 자유롭게 경계를 초월하여 형성되는 연대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여기에는 상호 이해와 인정의 글쓰기 방식이나 정서적 유대감을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는 여성주의적 관점이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대중문화를 매개로 하는 새로운 공동체의 상상이 기존의 불균등한 힘의 권력관계들에 의해 부과된 강고한 경계와 대립들을 넘어서는 힘으로서 작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배용준 팬 커뮤니티의 구성원들은 공동체인 팬클럽, 팬데가, 다정, 남성, 중신인, 삼한전선

에서 느끼는 소외와 결핍을 단순히 자원의 문제라 한정하지 않고 집단적으로 대응한 해외노출의 문제들로 인식하고 있다. 또한 한일 역사관계와 이런 맥락의 다양한 정치안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이해를 표명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배용준의 가족 담론에서 아시아는 할리우드에 대적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시장으로서 위치지워진다. 그에 의해 가족들이라고 불려지는 이들은 아시아라는 한 강력한 시장에서의 소비자들이다. 따라서 아시아는 하나라는 인식 속에는 여전히 특유의 문화적 취향과 감수성이 중심에 놓여진다.

한편 재일 한국인의 문제와 같이 오늘날 전세계적인 중심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다의 국가에서의 소수집단 승인에 대한 문제가 여성 팬들에 의해서도 인식되는 계기가 만, 이 역시 여전히 한국과 일본이라는 대립 구도 속에서 모호하게 위치에 놓여지고 어온 재일한국인들을 오히려 배용준과 같은 한국인이라는 이분법적 구도 속에 위치시키고 역시 낳았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들에 대해 이와부치(2004)는 일가 당면한 문제들에 대한 직시라기보다는 오히려 ‘망각하기 위한 승인’이라는 표현을 비판하였다.

지금까지 본 논문에서는 젠더와 계급의 관점을 중심으로 초국적 문화흐름의 문화는 측면에서 배용준의 온라인 팬 커뮤니티가 지닌 가능성과 한계들에 대해 살펴보았 국적 문화 흐름을 이용하려는 국가와 자본의 움직임은 오늘도 여전히 분주하다. 그러한 힘들에 맞서 미디어 소비가 만들어내는 다양한 타자와의 만남들이 자기 사회 대한 성찰은 물론 타자에 대한 인식과 관계에서의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의 들을 발견하려는 시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이기형 (2006). 탈지역적으로 수용되는 대중문화의 부상과 '한류현상'을 둘러싼 문화정치, 김수이 편. 『한류와 21세기 문화비전』, 서울: 청동거울.
- 이와부치 고이치 (2004). 한류가 제일 한국인과 만날 때: 초국가적 미디어 교류와 로컬(local) 다문화 정치의 교착, 『프로그램/텍스트』 11호, 87-120.
- 장필화 (2002). 사이버공간에서 여성 경험 사례 연구. 서울 : UNDP
- 히라타 유키에 (2005). 『한국을 소비하는 일본- 한류, 여성, 드라마』, 서울: 책세상.
- Anderson, M. W. and C. Kingsley (1999). Finding Resources for the Study of Multiculturalism on the Internet, in M. Prosser and K. S. Sitaram (eds) *Civic Discourse: Intercultural, Internatioal and Global Media*, (pp.31-44). Stamford, CT: Ablex.
- Bacon-Smith, C. (1992). *Enterprising Women: Television Fandom and the Creation of Popular Myth*. Philadelphia, PA: Uni. of Pennsylvania Press.
- Bauman, Z. (1998). *Globalization*. 김동택 역 (2003). 『지구화, 야누스의 두 얼굴』. 서울: 한길사.
- Biedly, D., L. Harrington and W. Biedly (1999). Whose Stories Are They? : Fans' Engagement with Soap Opera Narratives in Three Sites of Fan Activiry, *Journal of broadcasting and Electronic Media* 43(1). 35-51
- Brundson, C. (1981). "Crossroads" : Notes on Soap Opera, *Screen* 22(4): 32-7
- Clerc, S. (2000). Estrogen Brigades and 'Big Tits' Threads: Media Fandom Onlines and Off, in D. Bell and B. M. Kennedy (eds) *The Cybercultures Reader* (pp.216-29). NY: Routledge.
- D'Acci, J. (1989). *Women, 'Woman' and Television: The Case of Cagney and Lacey*. Uni. of Wisconsin-Madison.
- Darling-Wolf, F (2004). Virtually multicultural: trans-Asian identity and gender in an international fan community of a Japanese star. *new media & society*, 6(4): 507-528.
- Featherstone, M. (ed.) (1990). *Global Culture*, Newburry, CA : Sage
- Fiske, J. (1992). "The Cultural Economy of Fandom," *The Adoring Audience-Fan Culture and Popular Media*, Lisa A. Lewis (ed.), London & N.Y. : Routledge.
- Frederik, C. A. N. (1999). Feminist rhetoric in cyberspace: the ethos of feminist usenet newsgroup. *The information society*, vol. 15. pp. 187-197.
- Iwabuchi, K. (2001). *Transnational Japan*, Tokyo; Iwanami Shoten, 히라타 유키에-전오경(역). <아시아를 이시는 대중문화>. 서울: 또 하나의 문화. 2004
- _____ (ed.) (2004). *Feeling Asian Modernities*, Hong Kong Uni. Press

- Giddens, A. (1990). *The Consequences of Modernity*, Cambridge: Polity.
- Grossberg, L. (1984). Another boring day in paradise: rock and roll and the empowerment of everyday life. in Gelder, Ken & Thornton, Sarah.(eds.)(1997). *The subcultures reader*. pp. 477-493. London & New York : Routledge
- Grossberg, L. (1992). Is there a Fan in the House?: The Affective Sensibility of Fandom. in Lisa A. Lewis (ed.). *The Adoring Audience: Fan Culture and Popular Media*. London & New York.: Routledge.
- Hall, S. (1992). The Question of Cultural Identity. In S. Hall, D. Held and T. McGrew (eds.), *Modernity and its Futures*. Cambridge: Polity Press
- Hayashi K. (2005). Assessing the Popularity of "Winter Sonata" : How do Women's Emotions Affect the Public Sphere in Japan?, *Cultural Industry and Cultural Capital Seminar in Seoul* (28 Feb. 2005), 40-58.
- Hu, K.(2004). Chinese Re-makings of Pirated VCDs of Japanese TV Dramas,(ed.) Iwabuchi, K. (ed.). *Feeling Asian Modernities*, Hong Kong Uni. Press
- Iwabuchi, K. (2001). Transnational Japan. 히라타 유키에 · 전오경 공역, 『아시아를 잇는 대중문화』, 서울: 또 하나의 문화.
- Lash, S. & J. Urry (1996). *Economies of Signs and Space*, Sage.
- Liebes, T. & Katz, E. (1990). *The Export of Meaning*,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McQuail, D. (1997). *Audience Analysis*, Sage.
- Miller, (1992). The Young and the Restless in Trinidad: a case of the local and the global in mass consumption, in Hirsch, E & R. Silverstone, *Consuming Technologies*, NY: Routledge
- Radway, J. (1984). *Reading the Romance: Women, Patriarchy and Popular Literature*. Chaper Hill, NC: Uni. of North Carolina Press.
- Surrey, J. L. (1991). Relationship and empowerment. in Jordan, Judith et al.(eds). *Women's growth in connection :writings from the Stone Center*. pp.162-180. New York : Guilford Press
- Storoy, T. (1989). *Cultural Consumption and Everyday Life*, London: Arnold.
- Wakefield, S. R., (2001). "Your Sister in St. Scully": An Electronic Community of Female Fans of The X-Files, *Journal of Popular Film and Television*, 29(3).
- 모우리 요시다카 편, (2004). 日式韓流 -'겨울 소나타와 일한 대중문화의 현재', 세리가 서방
- NHK <방송문화연구와 조사>, 2004, 12

Travers, Ann(1999). Writing the public in cyberspace : redefining inclusion on the net. New York : Garland Publishing

